

『토지』의 ‘만주’ 형상화에 나타난 동아시아 인식과 공간 표상의 변화 과정

— 연재 시기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 수 영** · 최 석 열***

요약

이 논문은 『토지』 연재 시기별 박경리의 사상 및 ‘중국/일본관’의 변화 요인을 추적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작품 속 ‘만주’ 형상화 방식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쓴다. 『토지』는 1969년 6월부터 집필을 시작하여 1994년 8월을 끝으로 총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창작된 대하소설이다. 작가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의 작품을 창작할 때, 처음 작품 구상과 작가의 사상·내면 의식은 시종일관 관철되기 어려우며 이는 정반대의 사유로 나아가 작품 서사에 반영되어 작품의 서사가 처음 구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박경리 역시도 2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자신의 사상·생각의 변화에 따라 최초로 설정했던 『토지』의 구상과 기획을 바꾸면서 집필을 해 나갔다. 특히 이러한 작가의 사상 변화에 따른 작품 서술의 변화는 4부 연재 시작 전후에 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작품 서술 변화의 가장 큰 동인(動因)은 바로 작가의 ‘중국/일본관’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작품 서술의 변화는 소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글은 2부와 5부에 재현된 ‘만주’ 공간 형상화 방식에 주목했다. 그 이유는 2부와 5부에서의 ‘만주’가 당시 작가의 역사관 및 사회적으로 형성된 담론 등에 영향을 받으며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채 작품 속에 재현되었기 때문이다. 박경리는 『토지』에서 ‘만주’를 형상화할 때, 연재 시기별 작가의 역사관 변화에 따라 ‘만주’의 이미지를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581)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교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새롭게 생성했다. 이 글은 연재 시기별 작가의 사상 및 역사관의 변화 요인을 두 가지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작품에서의 '만주' 형상화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는 2부 연재 당시 사회적으로 형성된 '간도' 담론이며 둘째는 5부 연재를 앞둔 1989년에 경험한 '중국' 여행이다. 2부에서 '만주' 지역은 '간도'를 회복해야 할 '고토'로 여기고 있던 작가의 역사관과 1972년 2부 연재 당시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간도' 담론이 교섭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박경리는 2부에서 '만주'를 옛 이주 조선인들의 다양한 삶의 터전이자 회복해야 할 고토로 그리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을 모두 우리 민족에게 수난을 준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 하지만 작품을 서술하는 데 있어 '민족주의'에 사로잡히는 것을 경계한 박경리는 4부 이후 태도를 바꿔 『토지』를 '민족주의'에 입각한 '일본론'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가의 작품 구상의 변화와 맞물려 작가는 '중국'을 여행하게 되고 '중국' 여행에서 간도 이주민들의 후손들을 보게 된다. 여기서 작가의 동아시아 삼국을 바라보는 역사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중국 여행 이후 박경리는 '중국'을 우리와 같은 일체의 '피해국'이자 '소수 민족 정책'을 통해 우리 민족을 보호해주는 나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중국/한국'과 '일본'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일체 시기를 조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후 5부에서 '만주'는 '일본'에 의한 수난/저항 등 '민족주의'의 프리즘을 투과한 방식으로 형상화된다.

이처럼 박경리에게 있어서 '만주'는 연재 시기별 사회적 담론 및 자신의 경험에 의한 사상 변화로 인해 철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형상화된 공간이다. 따라서 『토지』에서의 만주가 지닌 의미를 풍부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연재 시기별 사회적 담론 및 개인적인 체험으로 인해 변화된 작가의 사상과 역사관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

주제어: 만주, 장소, 간도, 민족주의, 하얼빈, 공간

목차

1. 서론: 대하소설 『토지』의 변화와 차이에 대하여
2. '간도 되찾기 운동'과 『토지』 2부의 고토 회복 의지
3. 박경리의 중국 여행과 동아시아 인식의 변화 양상
4. '배일감정' 혹은 과잉된 민족주의와 『토지』 5부의 '만주' 형상화 방식
5. 결론

1. 서론: 대하소설 『토지』의 변화와 차이에 대하여

『토지』¹⁾는 박경리가 1969년 6월부터 집필을 시작하여 1994년 8월에 완간한 대하(大河)소설이다. 『토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현대의 고전(古典)’의 지위에 오른 소설이며, 학계와 비평계는 물론이고, 온 국민이 열독(閱讀)하는 소중한 한국문학의 자산일 뿐 아니라, 비록 소설의 일부분일지언정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한국문학에 관심을 지닌 외국의 독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한국 현대소설이기도 하다. 한 작가가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1897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가장 부침(浮沈)이 격렬했던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시공간을 섭렵하며, 조선의 전 계급과 신분을 망라하고, 동아시아의 한국과 중국, 일본을 아우르는 광대한 공간적 지평을 확보하면서, 그 시대를 살았던 다양한 인간군상의 삶의 변화 과정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이 담아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인간은 다른 어떤 소설보다도 광대하고 깊다. 그런 점에서, 『토지』는 작가 박경리의 대표작인 동시에, 작가 박경리의 사상, 특히 근현대사에 관한 작가의 역사 인식과, 동아시아 인식이 가장 충실하게 반영된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작가가 거의 30년에 가까운 긴 기간 동안 하나의 작품을 창작할 경우, 창작 초기의 작가의 사상이나 인식은 시종일관 관철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필 기간이 길어지면서, 초기의 인식이나 사상이 작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이나 영향 관계들에 의해 집필 후반기에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비

1) 본 연구의 대상 텍스트는 마로니에 북스에서 출판한 『토지』(20권)이다. 작가 박경리가 세상을 떠난 후 2012년에 출판된 '마로니에 북스' 판본을 대상 텍스트로 삼은 것은, 『토지』 판본 비교 연구를 수행한 후 '마로니에 북스' 판본이 가장 신뢰할 만한 판본이라고 본 선행 연구결과에 의거한 것이다. 『토지』 판본 비교 연구에 관해서는, 이승윤·조윤아, 「판본 비교를 통해 살펴본 『토지』의 수정 양상과 서술상의 특징」, 『동남어문논집』, 2014를 참조.

단 『토지』뿐 아니라 그와 비슷하게 긴 집필 기간과 방대한 분량을 지닌 대하 장편소설인 경우, 이러한 변화가 작품에 나타난다는 것은 딱히 흠결이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6년이라는 긴 집필 기간 동안 『토지』에 나타난 박경리의 사상과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를 초래한 안팎의 요인들로 어떤 것들이 작용했는지를 논구해 보고자 한다. 작가의 인식과 사상에 일정한 변화가 일어난 부분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토지』에 나타난 중국관(中國觀)과 일본관(日本觀)이며,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특히 『토지』의 2부와 5부에서 소상히 재현되고 있는 ‘만주’의 공간 표상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혀 보고자 한다. 이 글이 『토지』의 ‘만주’ 공간 표상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비교적 집필 초기였던 2부에서 형상화되었던 ‘만주’와 5부에서 ‘만주’의 공간적 표상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데, 이렇게 형상화된 작품 속에서의 ‘만주’는 집필 초기와 후기, 작가의 사상적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작품에 재현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만주’는 작가 박경리의 중국과 일본에 관한 인식이 가장 집약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소설 속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박경리는 『토지』의 창작 목적을 밝히면서, 일본 제국주의 아래에서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일그러져 가는지를 그려내기 위해서는 ‘조선’뿐 아니라 당시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삶까지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하동·진주 등 ‘조선’뿐만 아니라 용정·신경·하얼빈 등 ‘만주’ 지역까지 그 서사적 공간 배경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에는 20세기 전반 우리 민족의 만주 이주와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매우 중요한 서사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토지』에 등장하는 ‘만주’ 지역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간인 만큼, 작품에 등장하는 ‘만주’ 공간의 의미를 해석하는 연구도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어 온 바 있다.

정호웅은 『토지』 속 '만주' 공간을 '정치성의 공간', '피난지 또는 이상의 공간', '떠도는 나그네의 공간', '소생 또는 희망의 공간' 네 층위로 나누어 '만주'라는 공간의 다양한 특성을 드러내고자 했다.²⁾ 또한 그는 '만주'라는 공간이 각 인물들에게 '열린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분석했다.³⁾ 이상진은 작품 속 '만주'가 이동 경로 혹은 토론의 장으로 기능할 뿐 구체적 형상화에 대해서는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박경리가 당시 '만주' 지역의 '기록된 역사'만 '재현'하는 것이 아닌 '만주'에서의 조선인의 삶을 다양하게 보여주려 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만주'가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지적했다.⁴⁾ 또한 그는 '만주'에서 인물의 행위에 실제성을 부여하거나 지역 역사와 연결된 사건을 서사화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실패했지만, 『토지』를 통해 작가가 동아시아 3국 간의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던 '만주' 지역을 소설의 무대로 끌어들여 그 역사를 함께 읽고 당대의 문제를 조망해보겠다는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⁵⁾

앞의 연구들이 '만주'공간 전체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조윤아는 작품에 등장하는 '하얼빈'이라는 개별 도시를 공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했다. 그는 하얼빈·용정·신경 등 여러 지역을 '만주'라는 큰 틀 안에서만 해석할 경우 각 지역의 개별적 특성과 차별성이 희석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을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⁶⁾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토지』에 나타난 '만주' 지역이 지닌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문학사에서 '만주'라는 공간이 지닌 중요한 의미를 환기하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2) 정호웅, 「『토지』와 만주 공간」, 『구보학보』, 2016.

3) 정호웅, 「한국 현대소설과 만주공간」, 『문학교육학』, 2001.

4) 이상진, 「『토지』속의 만주, 삭제된 역사에 대한 징후적 독법」, 『현대소설연구』, 2004.

5) 이상진, 「심상과 사실, 지도의 상상력: 박경리 『토지』의 만주지역 형상화 방식」, 『통합인문학 연구』, 2018.

6) 조윤아, 「두 가지 층위로 나타난 하얼빈의 장소성」, 『비평문학』, 2018.

이 글은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 박경리가 작품 속에 ‘만주’ 지역을 형상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추론하고, 『토지』의 ‘만주’공간이 지닌 사상사적 맥락과 의미를 좀 더 미시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박경리가 작품 속에 ‘만주’를 그려낸 것은, 평사리 등의 ‘조선’을 그릴 때와는 다르게, 당시 형성되고 있던 지식인 사회의 담론 질서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이것을 작품을 통해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따라서 『토지』의 ‘만주’가 지닌 공간표상과 그 의미를 좀 더 조밀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작품 속에 ‘만주’를 재현해냄으로써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박경리는 ‘만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부재했기 때문에, 안수길의 『북간도』 등 재만(在滿) 경험이 있는 작가들이 쓴 문학을 비롯하여, 에드가 스노우의 『중국의 붉은 별』, 『간도의 사정』 등 여러 실증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이를 토대로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만주’를 형상화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는 ‘만주’를 형상화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토지』의 서사적 배경을 ‘만주’로 확장한 것은 『토지』 3부 서사까지 “영성하게 만들 정도”로 곤란한 상황을 가져왔다.⁷⁾ 이를 자각한 박경리는 3부 이후부터는 다시 ‘조선’이라는 한정된 공

7) 김치수와와의 대담에서 박경리는, “『토지』의 구성이 수직적인 요소와 수평적인 요소가 교차되면서 동시에 진행된다고 했는데, 2부에 오면 좀 평면적으로 되는 등 어떤 애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라는 김치수의 질문에 “결국 앞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 텐데 3부도 마찬가지로요. 애당초에는 해방까지 오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사실 3부는 1부의 한 3배가 돼야 되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중간중간에 잘라내기도 했지만 영성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된 데는 무대를 넓혀놓은 것이 원인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넓혀지 않고는 또 안 돼요.**”라고 답하고 있다. (박경리, 「박경리와 의 대화」, 김치수편, 『박경리와 이정준』, 문학과 지성사, 2016, 265면. 밑줄 강조-인용자) 박경리가 밝힌 “영성한 느낌”은 대체로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듯하다. 그 하나는 서사공간을 작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넓게 확장해버렸다는 것, 다른 하나는 ‘직접 체험하지 않은 공간을 그려야만 하는 어려움’이다. 5부에서 다시 ‘만주’를 등장시켰을 때, 두 번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첫 번째의 문제는 여전

간으로 서사적 배경을 좁혔다. 그러나, '만주'로 공간이 확장되면, 서사의 열개가 조밀해지지 않고 결국 작품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작가는 5부에서 다시 '만주'를 서사적 배경으로 복원한다. 즉 그는 '만주' 형상화의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그것이 작품 서사를 “영성하게 만드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금 5부에 '만주'를 재배치한 것이다.

박경리는 1972년 『토지』 2부를 연재할 당시 '만주' 지역을 밀정·성공한 상인·독립투사·농민 등 다양한 이주 조선인들의 생활 방식이 내재된 장소, 즉 조선 이주민들의 '수난'과 '기회'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재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작가의 시도는 당시 여러 문학 작품에서 '친일/항일' 혹은 '수난/저항'을 중심으로 형상화되고 있던 '만주'에 새로운 이미지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부 연재가 종료되고 20년 뒤인 1992년, 5부 연재를 하면서 박경리는 '만주'에서의 다양한 조선인의 삶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대신, '만주' 공간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조선인들의 삶을 '민족주의' 프리즘을 통해 형상화하는 쪽으로 선회한다. 즉 2부의 '만주'와 5부의 '만주'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만주' 형상화 방식의 간극이 나타나게 된 요인을 추적하고자 한다. 연재 시기에 따라 만주의 공간 표상에 '차이'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작가의 역사관과 동아시아 인식이 연재 시기와 연동되어 뚜렷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역사관과 동아시아 인식에 변화를 초래한 연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1972년 박경리가 『토지』 2부를 집필할 당시에 형성된 '간도'를 둘러싼 담론 지형의 일단을 살펴보려 한다. 이때 형성된 간도 담론과 박경리의 역사관의 상관관계를 통해 『토지』에서의 간도 지역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또 2부 연재 당시 박경리의 '간도'에 대한

히 어려움의 원인으로 작동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 대답은 『신동아』(1981.5) 지면에서 이뤄진 것이다.

인식은 어떠했는지를 검토한다. 두 번째는 1992년 5부 연재 시작 전인 1989년에 있었던 작가 박경리의 ‘중국 기행’인데, 실제 ‘중국’ 여행이 당시 작가의 동아시아 역사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 이러한 변화된 역사관은 5부에서 ‘만주’ 형상화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이 중국 여행 후 쓴 작가의 기행문 『만리장성의 나라』는, 『토지』의 공간 인식과 형상화, 나아가 중국관과 일본관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텍스트의 하나다.

2. ‘간도 되찾기 운동’과 『토지』 2부의 고토 회복 의지

박경리는 『토지』 2부를 시작하면서 작품의 서사 공간을 ‘만주’ 지역으로 확장하며 ‘만주’에서의 조선 이주민들의 삶을 작품 속에 재현해내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가 ‘만주’라는 지역을 작품의 서사적 배경으로 설정한 것은 단순히 조선 이주민들의 삶을 그려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토지』 2부에서의 ‘만주’는, 당시 작가가 지니고 있던 ‘중국관’과 당시 사회적으로 형성되었던 ‘간도 되찾기 운동’이라는 담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된 복합적 인식이 드러나는 서사공간이었다.

『토지』를 쓰면서 비로소 중국을 의식했다. 통과해야 하는 자료에서 끊임없이 중국과 일본이 묻어 나왔다. 또 필요에 의해 중국에 관한 것, 일본에 관한 것을 읽지 않으면 안되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국과 일본은 작품을 가로질러 가는, 꽤 굵은 실타래였다. 일제 40여년은 우리 민족의 수난사인 동시에 개인의 삶이 어떻게 일그러져 갔는가, 어떻게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 갔는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행의 고리였다. 중국은 우리와 같은 피해국으로 헐벗은 우리 민족의 유랑지였으며, 일본의 마수를 피하여 망명해 갔던 곳이며, 국권을 탈환하기 위한 투사들의 저항의

근거지,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졌던 그 땅을 알지 못하고서 작품을 쓸 수 없었던 것이다.⁸⁾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작가가 『토지』를 쓰면서 비로소 ‘중국’을 ‘의식’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진술은, 작가가 처음 『토지』를 구상할 때는 ‘중국’까지 서사 공간을 확장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일제 40여 년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간도 이주’ 역시 ‘우리 민족의 수난사’ 중 하나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박경리는 그들의 삶 역시 작품에 재현해내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곡을 더욱 풍부하게 그려내는 길임을 알게 되었다.

박경리는 『토지』를 구상하면서, 애초에는 일제 40여 년 동안의 조선인들의 삶을 오로지 민족 전체의 ‘비극’에 수렴시켜 그리려던 것은 아니었다. 그가 처음 구상했던 것은, 일제로 민족 전체의 ‘비극’이 아닌, ‘콩값이 뛰어올랐다는지 쌀값이 올랐다는지 또는 징용이나 징병’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서 파생된 작은 사건들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려고⁹⁾ 함이었다. 결국 그는 『토지』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 하의 ‘식민지’라는 ‘역사적 사건’을 가장 큰 배경으로 설정하면서도, 그 혼란과 역경의 시기에 독립투사·밀정·성공한 사업가·가난한 농민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간 조선인들의 삶이 지닌 ‘개별성’의 가치와 그 변화의 진폭을 함께 담아내고 싶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박경리는 ‘기록된 역사를 선택하고 재구성하는 단순한 서술에서 벗어나 역사가 어떻게 체험되고 인식되는가를 탐색¹⁰⁾’하였다.

이러한 연재 초기 『토지』의 구상처럼, 『토지』 2부에서 ‘간도’는 간도로 이주하여 고난을 겪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동시에 상업으로 성공한 인물

8) 박경리, 『만리장성의 나라』, 동광출판사, 1990, 15면.

9) 박경리, 「박경리와의 대화」, 위의 책, 224면.

10) 이상진, 「『토지』 속의 만주, 삭제된 역사에 대한 징후적 독법」, 252면.

들, 밀정, 독립투사, 농민, 중국 귀화 조선인 등 매우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토지』 2부는 조준구에게 생활과 생계의 근거를 빼앗긴 ‘최참판댁’ 일가가 ‘대화재’가 발생한 간도 ‘용정’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2부의 첫 시작이 ‘대화재’인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용정 대화재는 실제 1911년 5월에 용정촌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인데, 이 사건은 ‘이제 용정은 망했다’라는 작품 속 서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용정’ 거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재난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재난’은 용정촌 시가지지를 다시 정비하고 새롭게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일본은 당시 일본총영사관 하에 ‘용정촌 구제회’를 설립하였는데, ‘용정촌 구제회’ 활동은 그들의 본래 목표와는 별개로 상업 등의 활동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낯선 땅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¹¹⁾

박경리는 이 ‘재난’을 통해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역사에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작품을 서술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냉철한 태도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¹²⁾ 따라서 그는 2부에서 당시 ‘용정’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함께 제시하면서 조선인들에게도 새롭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사실을 ‘최서회’의 치부(致富) 과정을 통해 재현했다.¹³⁾ 최서회를 제외하고

11) ‘용정촌구제회’ 등의 활동은 개인의 고리대에 비하면 이자 부담이 적은 대출 조건으로 조선인들을 유혹하여 용정촌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용정촌구제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태국, 「1920년대 용정의 사회 문화 환경과 중학교 설립운동」, 『숭실사학』, 2010, 참조.

12) 박경리, 「박경리와의 대화」, 위의 책, 266면.

13) 최서회가 당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청나라 상부국에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인데, 당시 ‘용정’에서는 ‘간도협약’으로 인해 ‘조선인’이 간도 지방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조선인이 토지 및 가옥을 소유하는 것도 가능했다. 박경리는 이러한 ‘간도협약’ 당시 상황을 작품 속에 ‘최서회’가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통해 서술한 것인데, ‘간도협약’이 체결될 당시 이미 용정에서 조선인 중심 사회를 이루고 있던 조선인들은 용정에서의

도 『토지』 2부에 그려진 '간도'에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일찍이 최서해가 당시 간도의 조선 이주민들을 “거개가 생활 곤란으로 와 있고 혹은 남의 돈 지고 도망한 자, 남의 계집 빼가지고 온 자, 순사 다니다가 횡령한 자, 노름질하다가 쫓긴 자, 살인한 자, 의병 다니던 자”였다고 묘사한 바 있듯이, 『토지』 2부에는 송장환·김길상과 같은 ‘독립투사’와 더불어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간도로 넘어와 밀정 노릇을 하는 ‘김두수’가 등장하기도 하며, 생활고를 피해 간도로 넘어와 ‘상업’으로 성공한 ‘공노인’, 비슷한 이유로 이주했지만 여전히 가난한 생활을 영위하는 ‘서방’이라 이름 붙은 여러 명의 조선 민중들도 등장한다. 이처럼 박경리는 기존의 재만 문학과는 다르게 ‘간도’에서의 조선인 이주민들의 형상과 그 삶의 진폭을 다양하게 그려내려고 애썼다. 이러한 창작상의 특징으로 인해, 2부에서 형상화된 ‘간도’는 실제 간도에 살던 사람이 작가에게 ‘간도에 산 적이 있냐고 물을 정도로 세밀하여 그 묘사와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리얼리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¹⁴⁾ 최서회를 포함하여 당시 ‘용정’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조선 이주민들의 다양한 모습은 ‘만주’를 ‘수난과 저항’ 혹은 ‘친일과 항일’의 구도 속에서 재현해내던 기존의 문학¹⁵⁾에 비해 훨씬 다채롭고 풍요로운 이주민 ‘개인’의 삶을 만날 수 있으며, 이것이 또한 작가 박경리의 『토지』 집필의 의도이기도 했던 것이다.

한편,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박경리는 『토지』 2부에서 간도 지역을 형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서회는 이 기회를 틈타 조선인들에게 토지를 사들였고, 이를 중국 ‘상부국’에 비싼 값에 팔아 부를 축적하였다. 이런 결과로 작품 속에서 중국 ‘상부국’은 토지값이 너무 비싼 탓에 결국 일정 부분의 토지만 매입한 후 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을 포기한다.

- 14) 황호택, 「국민문학 ‘토지’ 작가 박경리 “행복했다면 문학을 꺼안지 않았다”」, 『신동아』, 2004.12.14.
- 15) 한국문학사가 견지해 온 ‘만주의 공간 표상의 궤적과 그 의미에 관해서는, 한수영, 「만주의 문학사적 표상과 안수길의 『북간도』에 나타난 ‘이산(移散)’의 문제」(『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5에 수록)를 참조.

상화하기 위해 당시 ‘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조선과 중국, 일본의 역사를 검토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토지』의 주된 서술 방식 중 하나인 토론, 소문 등의 형식을 통해 서사의 큰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다. ‘간도’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은 간도 이주민들의 수난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데, 작가는 중국과 일본의 복잡한 정치·경제·외교·군사적 이해의 충돌이 우리 민족에게 고통과 억압을 주는 주된 원인이라고 규정한다. 박경리는 송장환과 이상현 등의 대화를 통해 당시 ‘간도 협약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정세 변화와 그로 인해 수난을 겪어야만 했던 ‘조선인’들의 위상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한다.¹⁶⁾

당시 ‘조선인’들을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침병(尖兵)’으로 의식했던 중국 정부는 ‘간도’ 지역에서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회수하기 위해 중국으로 ‘귀화’한 조선인만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당대 상황의 세부적 진실은 ‘심운구’라는 ‘귀화 조선인’의 형상을 통해서 잘 그려지고 있으며, 이는 박경리가 당대의 ‘간도’ 지역의 사회경제사를 비교적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소설을 쓰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즉 박경리는 당시 ‘간도’를 둘러싼 여러 역사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중국’과 ‘일본’의 관계 변화에 따라 ‘간도’ 이주민들의 삶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어 갔는지 다양한 인물상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단순히 ‘일본’만이 우리 민족에게 ‘비극’을 안겨준 것은 아니며, 본래 ‘간도’ 지역에서 살고 있던 ‘중국인’들 역시도 우리 민족에게 억압과 좌절 등의 수난을 겪게 했다는 사실

16) 간도에서 일본인이 서전서숙을 해산하고 간도 보통학교를 세운 상황 속에서 일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되놈’들과 손을 잡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송장환의 말에 이상현은 “청인들은 그네들 정부를 업고 와서 귀화가 아니면 땅을 내놔라, 그러나 우리 백성들은 쥐꼬리만 한 나라의 도움도 없이 대항했던 겁니다. 그러니 영악해질 수밖에요. 이범윤 선생께서 애를 쓰셨지만 대세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변했고, 사실 일본의 통감부 파출소가 생겨지자 그 날개 밑으로 기어든 사람들 모두가 친일파는 아니었던란 말이오. 빈대 미워서 초가삼간 불태운단 말이 있지 않소?”라고 말한다. (박경리, 『토지』 5, 마로니에북스, 2012, 59면.)

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토지』 2부에서, 박경리는 ‘중국’과 ‘일본’을 모두 ‘간도’라는 우리 민족의 땅을 빼앗은 ‘가해자’로 그리고 있으며, ‘간도’는 언젠간 회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고토(古土)’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 내의 관점과 서술들은, 2부 연재 당시에 활발히 전개되었던 ‘간도 되찾기 운동’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토지』 2부에서 형상화된 ‘간도’에는 작가의 초기 작품 구상과 작가 개인의 역사관, 사회적으로 형성된 담론 등이 중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토지』 2부가 연재될 당시에는 국회도서관에서 『간도영유권관계발췌문서』라는 제목의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간도 영유권 문제를 다룬 간도 자료집¹⁷⁾이 발간되었다. 또한 1972년 전후의 시기에는 ‘규장각(奎章閣)’에서 토지소유자성명 등이 세밀하게 적혀, 간도 귀속 문제 해결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 「간도거민호수간토성책」과 「한말기사」 등이 새롭게 발견¹⁸⁾되기도 하고 1972년에는 간도 영유권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고 주목 받았던 ‘백두산 정계 문제’를 다룬 ‘여지도’가 새롭게 발견¹⁹⁾되기도 하면서

17) 국회도서관은 1967년, 1867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외무성 및 육해군성 기밀문서 복사본이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미국 국회도서관에 상당 부분 훼손되어 보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미국 국회도서관에 요청하여 우선적으로 간도 영유권 관계가 담긴 1만 1천 4백 50장의 복사 필름을 발췌하여 번역하고 영인본으로 정리하고자 시도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줬으며 이를 토대로 1975년 일본 외무성 기밀문서 중 제 1집으로 『간도영유권관계발췌문서』가 발간되었다. 당시 발견된 ‘기밀문서’에는 간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청 양국의 분쟁내용과 당시 간도의 우리 민족의 처절한 생활상을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된 것들이 담겨있었으며, 이는 민족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日帝때 機密文書정리 國會도서관 七年前 美國서 필름입수』, 『동아일보』, 1974.04.10.)

18) 『조선일보』, 1969.01.12.

19) 실제로 이 ‘여지도’는 백두산의 정계비와 ‘토문강’의 위치가 자세하게 기입된 지도 중 가장 오래된 지도라고 평가받으며 학계에 관심을 끄는 동시에 ‘토문강’과 ‘두만강’이 동일한 강이라는 중국학자들의 주장을 반증할 수 있는 실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받았다. (‘백두산정계비 등 밝힌 귀중한 사료 최고의 여지도 발견’, 『조선일보』, 1972.9.6.)

‘간도’를 회복해야 할 ‘고토’로 보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백산학회(白山學會)’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의 ‘간도 되찾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²⁰⁾ 당시 박경리가 참고했던 『북간도』의 작가 안수길 역시 1712년에 세워진 ‘백두산정계비’를 예로 들며 ‘두만강 북쪽의 북간도는 원래 우리 땅인데도 현재 중공에게 빼앗긴바 되었다’라고 주장하며 간도에 대한 고토 회복의 의지를 드러내었다.²¹⁾

이러한 당대 ‘간도’에 대한 지적 담론이 형성되던 시기에 『토지』의 서사적 배경 역시 ‘간도’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박경리는 ‘간도’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참고하기도 하고 치밀하게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였는데, 이 시기에 형성된, ‘간도’를 우리 민족 수난사의 현장이자 회복되어야 할 ‘고토’로 인식하는 사회적 담론의 환경의 영향도 무시하기 어렵다. 한 공간에서의 체험이 부재할 경우, 그 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감각’은 결여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간은 이미 그 공간에 쌓인 ‘경험적 데이터’들을 통해 낯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여 공간에 대한 ‘특별한 인식²²⁾’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즉 ‘다양한 텍스트를 통하여

20) 1966년 4월 27일에 창립된 ‘백산학회’는 창간호에서 자신들의 창립 목적을 ‘반만년동안 한민족의 생활무대요 국토의 근간이었던 현재의 만주일대와 연해주 일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간도의 고토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백산학회 창립정관, 『백산학보』 창간호, 1966.) 이들은 단순히 ‘간도’라는 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운동을 벌인 것뿐만 아니라 고조선 이후부터 ‘간도’ 지역에 대한 역사를 탐구하여 한국인들에게 ‘고토 회복 의지’를 심어주고 민족정기를 양양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희망했다.

21) 당시 안수길의 인터뷰는 1969년 5월 29일 『조선일보』에 실렸는데, 안수길의 인터뷰 기사와 함께 ‘간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밝혀야 한다는 ‘백산학회’ 부회장의 역사 관련 기사가 같은 지면에 실렸다. 안수길의 『북간도』에 ‘민족주의’가 투입되면서 나타난 서사의 균열에 관해서는 한수영의 앞의 논문이 참조가 된다. ‘채만(在滿)’의 경험을 문학적으로 반추하는 과정에서, 시종일관 ‘민족주의’의 투입을 경계하고, 늘 이주자-내부의 시선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안수길 이, 『북간도』 연재를 전후하여 ‘민족주의’의 강한 외압을 작품에 반영한 것도 이러한 사회적 담론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그는 해방전 문제작이었던 중편 「벼」를 포함하여, 일제말 ‘만주국’시기에 창작한 중단편 4편을 전면 개작하여 재출간하기도 했다.

22) 이푸 투안은 어떤 공간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직접적이고도 친밀한 ‘미묘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간에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어떠한 ‘상징’

전달받은 그곳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어느 하나의 장소성으로 수렴될 때, 그 특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장소감을 형성하기란 쉽지 않은 일²³⁾이다. 특히 민족적·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장소의 경우, 그 공간의 이미지는 우선적으로 이미 축적된 '경험적 데이터'들을 통해 형성될 것이다. 한편 『토지』 2부가 연재되기 시작하고 일 년 후인 1973년 7월 4일에 『동아일보』는 박경리의 『토지』를 안수길의 『북간도』와 함께 나란히 소개하면서, "해방 이후 사라진 '살기 위해, 독립을 위해, 혹은 일체에 시달리는 조국의 참상을 보다 못해 몰려든 한국인의 제 이의 삶의 터전인 '간도'가 '민족사의 현장'²⁴⁾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기사를 실고 있다. 이런 성격의 기사 또한 당시 한국 사회에 형성되어 있던 이른바 '간도 담론'의 영향과 그 파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즉, 박경리의 『토지』와 안수길의 『북간도』처럼, '간도'의 조선 이주민의 삶을 다룬 문학 작품을 크게 조명함으로써 간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제고와 역사의식의 확산을 기대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물론, 박경리의 '중국'인식, 특히 '간도'에 대한 인식과 간도 지역의 형상화, 그리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간도 담론'은 선형적(線型的) 인과관계를 구성한 것은 아닐 것이다. '간도'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 환경과 박경리의 『토지』를 비롯한 일련의 문학적 반향(反響)은, 선형적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역사적 인식을 공통지반으로 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 호응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실제로 박경리는 사머니즘의 연원과 연결하여 우리 민족이 만주를 넘어 시베리아 땅까지 진출했을 것이라고 주장²⁵⁾하며 '간도' 지역은 예부터

에 의해 매개되어 간접적이고 개념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그것 역시도 그 공간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아푸 투안, 윤영호·김미선 옮김, 『공간과 장소』, 사이, 2021, 21면.)

23) 조윤아, 앞의 글, 232-233면.

24) 김병익, 「문단 반세기 간도의 망명문단」, 『동아일보』, 1973.7.4.

25) 박경리·정현기·설성경, 「한국문학의 전통과 그 맥 잇기」, 『현대문학』, 1994.10, 이후에도 박경리는 2004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우리 민족이 살았던 영토이자 인젠간 고토를 회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인식을 가진 작가였다. 이러한 역사 인식은 작품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데, 그는 ‘간도’에 거주하는 인물들은 물론이고,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고토’ 의식을 표출한다.

안시성과 요동성 밖에 있는 요하를 따라 백목이 힘찬 줄을 그어나간다. 부여성 외곽으로 해서 하얼빈까지 왔을 때 백목이 부러졌다. 나머지 짧아진 백목이 송화강을 따라 시베리아로 쪽 빠져나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압록강 두만강 밖에 있는 이 땅덩어리의 크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잃어버린 강토. 조선의 땅덩어리만 하다고 여러분은 생각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강토 조선, 조선의 땅덩어리만 한 것이, 어쩌면 더 클지도 모르는 땅덩어리가 압록강 두만강 너머에 또 하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이 넓은 땅덩어리가 고구려 적에는 우리 영토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예! 선생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간도 땅에서도 천 리 밖 이천 리 밖에까지 우리 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똑똑히 알았을 것입니다.”²⁶⁾

질문에 ‘누루하치가 통일한 여진족에도 우리 한인의 피가 흘러 들어가 있어요. 삼국시대에 고구려 유민이 많이 넘어갔거든요. 백두산 정계비(定界碑)에는 토문강(土門江)이라고 돼있어요. 토문강(土門江)은 북류(北流)해서 송화강에 이르죠. 두만강은 도문강(圖門江)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토가 역사적으로 하얼빈까지 가는거죠’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한일합방이 무효라면 ‘간도협약 역시 무효가 되어야 하며 송화강까지 우리 영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호택, 「국민문학 '토지' 작가 박경리 “행복했다면 문학을 꺼안지 않았다”」, 『신동아』, 2004.12.15.)

26) 박경리, 『토지』 4, 116면.

위의 인용문에서 송장환은 서간도·북간도 지역뿐만 아니라 하얼빈, 시베리아 지역까지 모두 잃어버린 우리의 강토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는 앞서 『신동아』의 인터뷰에서 본 박경리의 역사의식과 일맥상통한다. 주갑 역시 ‘청국’ 사람들이 ‘간도에 있는 조선 사람을 보호’ 한다는 사실에 “여그는 본시 우리 조상의 땅 아녀? 선상님 그렇지라우? 여그를, 칠칠한 숲을 쳐헤치고 농토로 맨든 것도 조선 사람 아니여라우? 험디 청인이 와서 내나라! 하니 북통 칠 일이여”라고 말하며 격분한다. 박경리는 주갑의 입을 통해 ‘고토 회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두 인물뿐만 아니라 박경리는 여러 인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간도’에 대한 자신의 ‘고토 회복’ 의식을 작품에 배치한다. 독립군을 만나기 위해 간도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혜관’과 ‘윤도집’의 짧은 대화에서, 간도에 가는 것이 초행길 이냐고 묻는 ‘윤도집’의 물음에 ‘혜관’은 ‘만주는 남의 땅’이기 때문에 갈 일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윤도집’은 간도는 ‘조선 땅’이라고 단정 짓는다. 이처럼 박경리는 2부를 연재하면서 여러 인물들의 입을 통해 ‘간도’ 지역이 본래는 ‘조선 땅’임을 강조하고 언젠가는 그 ‘고토’를 회복해야 한다는 역사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 박경리의 중국 여행과 동아시아 인식의 변화 양상

박경리는 『토지』 2부에서 주요 등장인물들의 활동 공간을 ‘간도’로 확장하면서, 조선인의 삶의 영역과 그 역동성을 확장하고 심화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앞절에서 확인한 바 있듯이, 작가의 그런 의도와 노력은, ‘간도’를 비롯한 ‘만주’ 공간의 해석적 지평과 공간 표상의 관행들을 넘어서는 일정한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작가는 ‘간도’를 식민지 치하 조선인들의 또다른 ‘비극’과 ‘수난’의 공간으로만 구성하지 않고, 그 와중에서 개개인의 삶의 다양한 부침(浮沈)과 변화의 세밀한 표정들을 담아내

기 위해 분투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작가가 직접 경험해 본 적 없는 미지의 공간을 서사의 중요한 공간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작가 스스로 고백하듯이 “서사를 ‘영성’하게 만들 정도”로 곤혹스러운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수난’이자 동시에 ‘기회’의 땅으로서, 작가가 역동적인 삶의 무대로 그리고자 했던 그곳은, ‘간도 회복 운동’이라는, 당시를 풍미했던 민족주의 담론의 영향이 짙게 드리우는 공간으로 규정되었다. 성과와 더불어 나타난 이런 난맥상 탓인지, 작가는 3부에서부터는 ‘만주’를 인물들의 대화나 소문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제시할 뿐 다시 서사 공간을 ‘조선’이라는 무대로 좁혀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다.

흥미로운 점은 『토지』 4부 연재가 시작되면서부터 연재 초기에 구상했던 계획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서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박경리는 3부 연재를 마치고 3년 7개월 만에 다시 4부 연재를 재개하였는데, 이때 작가는 일제 역사 검토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4부에서 본격적으로 소설 이상의 ‘일본론’을 펼칠 것²⁷⁾이라고 선언하였다.

4부의 시간이며 무대인 1930년에서 45년까지, 철저히 봉쇄되고 바닥까지 수탈당했으며 모든 것이 말살되었던 일제 침략의 말기를 살았던 마지막 세대인 나, 작가라는 명을 짊어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뭘가에 의해 쫓기는 기분이었다. 강박이었고 초조, 불안이었다. (...중략...) 4부는 일본이 기둥이다. 철저한 일본의 분석 없이 작품의 진행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민족주의의 한 측면인 에고이즘에서 빠져나가야 했고 냉정히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감정, 수만의 신경이 바람에 진율하는 풀잎일지라도 무디게 뚫고 나가야, 내면은 아우성이며 포탄이며 전진이었다.²⁸⁾

27) 최영주, 「인터뷰/작가 박경리씨에게 듣는다 「土地」는 끝이 없는 이야기」, 『월간경향』, 1987.8, 560면.

28) 박경리, 「작가서문」, 『뫼 떠나는 배』, 지식산업사, 1988.

위의 인용문은 박경리가 『토지』 4부를 연재하면서 남긴 글의 일부이다. 박경리는 4부의 기둥이 될 '일본'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당시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 비극적으로 변화했던 조선인들의 운명을 설파(說破)해야 하는 '일제 침략의 말기를 살았던 마지막 세대'인 '나라는 작가의 '사명감'과 『토지』가 본질적으로 민족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인간'을 그린 것이어야 하기 때문²⁹⁾에 '민족주의'에서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다.³⁰⁾ 작가의 이러한 혼란은, 2부를 시작하면서 구상했던 것, 즉 단순히 '일본'으로 인한 민족의 '비극'을 그리는 것이 아닌, 일제 40여 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모색했던 개개인의 인간상을 그리겠다는 기획과, '일본'의 역사를 검토하면 할수록 커지는 '배일감정'³¹⁾이 자극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재귀(再歸) 사이에서 야기된 혼란이라고 볼 수 있다. 연재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민족에게 커다란 '비극'을 심어주었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 결국 작가는 스스로 그 포획으로부터 의식적으로 벗어나고자 했던 '민족주의'의 투망에 다시 갇히는 듯한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작가가 선언한 것처럼, 4부에서 강화된 '일본론'은 5부까지 줄곧 이어진다. 또한 박경리는 『토지』 4부를 연재하면서, 소설 집필과는 별도로 1980년대 말부터 집중적으로 자신의 '배일' 감정을 피력하는 다양한 글을 여러 편 발표하기도 했다. 4부에서 중심 줄기를 구성하는 '일본론'으로서의 서사 전개를 유지해 나가면서도 박경리는 여전히 '만주'를 간접적인 방법으

29) 최일남 인터뷰, 「한을 알 때 인간은 눈을 뜬다-인물 탐방, <토지>의 박경리씨」, 『신동아』, 1982.10.

30) 실제로 박경리는 위의 최일남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민족의식'을 치열하게 굴러다 보니 그것이 자신에게 투영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문학적 본질은 '인간'을 그리는 것이며, '인간'을 그린다 보니 '민족'이 들어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31) '배일감정'은, 박경리가 『만리장성의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다. 작가의 사유를 반영하는 용어이므로, 본고에서는 따옴표를 붙여 박경리의 '일본관'을 묘사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한다.

로 계속 환기시키고 있었는데, 5부에서 다시 ‘만주’를 본격적인 서사의 중심 공간으로 복원한다. 그러나 5부에서 복원된 ‘만주’의 이미지는 2부와는 다르게 ‘일본론’을 완성해야 한다는 작가의 새로운 의도에 부합하여 시종 일관 ‘민족주의’의 프리즘을 통해 형상화 된다. 5부에서 그려지는 ‘만주는 2부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상당부분 소거(消去)되고, 그 대신 독립투사의 근거지이자 피난처, 제국주의로 인해 황폐화된 몰락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만주’ 공간의 표상은 5부 집필에서 선언적으로 밝힌 ‘일본론’으로서의 소설, 그리고 그와 연동된 작가의 강한 ‘배일감정’과 그 궤를 나란히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토지』 5부에서 다시 서사 공간으로 등장하는 ‘만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9년에 있었던 작가의 ‘중국’ 여행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박경리에게 있어 ‘중국’ 여행은 ‘중국’에 대한 작가의 기존의 인식을 전면 수정하게 하는 경험이자 ‘민족주의’ 프리즘으로 ‘만주’를 형상화해야 한다는 역사적 의무감을 느끼게 만든 중요한 계기적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을 여행하고 나서 쓴 기행문 『만리장성의 나라』는 중요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 기행문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박경리의 중국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 주는 텍스트인 동시에, 그러한 중국인식이 『토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어, 일종의 상호텍스트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경리는 『토지』 4부의 연재가 종료되고 1년 후인 1989년에 비로소 ‘중국 땅’을 실제로 밟을 수 있게 되었다. 박경리는 『만리장성의 나라』에서 『토지』의 맥이 끊길까봐 장기간의 여행을 꺼렸지만, ‘중국’이라면 한 번쯤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여행을 결정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작가가 작품의 맥이 끊길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중국’에 간 이유는 “결코 작품에 나오는 현장을 돌아보기 위”함이 아닌 작품 속에 형상화한 “우리 동포의 삶과 만나기 위³²⁾”함이었으며, 박경리와 일행이 중국 여행을 감행한 최초의 목적 역시 ‘조선족 자치구 방문’이었다.³³⁾ 1989년 박경리가 중국

여행을 갔을 당시, '간도' 지역은 비록 중국의 영토이긴 했지만, 그곳에 간도 이주민 후손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다. 또한 민족의식에 입각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조선민족학교 연변대학'이 있고 '우리 글로 발행되는 신문이며 방송국' 등이 건재했다. 그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간도 이주민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연변지역에는 아직 '민족의식'이 살아 남아있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는 '지금-여기'에서의 이주민 후손들의 삶을 본 후에야, 그들을 '인식'했다는 사실에 대해 미안해하며 "그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한다.

흥미로운 점은, 박경리는 중국 동포들의 생활을 직접 목격하면서, 현지에서 살고 있는 조선 이주민 후손들에 대한 재인식뿐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앞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박경리는 『토지』 2부를 연재하면서 '중국' 역시도 '일본'과 같은 마찬가지로 조선인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웃 국가이자 민족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 여행 이후 작가의 '중국'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이주 '조선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이었다.

내 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역사를 말살하려 했던 일제시대를 비추어 생각해 보면 자기 나라 안의 소수민족을 오히려 보호하는 중국의 아량을 우리는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시책이 공평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중에서도 漢族에게는 1가구 1자녀를 고수하면서 소수민족에게는 2자녀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고, 앞서 말한 민족학교나 연구소를 존립하게 하는 점 등은 오히려 특혜에 속한다.³⁴⁾

32) 박경리, 『만리장성의 나라』, 32면.

33) 박경리는 『만리장성의 나라』의 나라에서 중국 여행을 감행한 가장 큰 목표는 '조선족 자치구' 방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경리, 『만리장성의 나라』, 165면.)

34) 박경리, 『만리장성의 나라』, 41면.

박경리는 중국 정부의 ‘소수 민족 정책’에 대해 상당히 감격한다. 연변을 방문한 그는, ‘간도’를 회복해야 할 ‘고토’라고 여기던 과거와는 달리, ‘간도’ 지역에 1910년부터 조선인 공동체를 이루고 그 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중국 정부의 ‘소수 민족 정책’이라는 ‘아량’이자 ‘차원 높은 고려’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박경리는 이 정책을 ‘특혜’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이런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토지』 2부에서 그려졌던, 1910년대 조선 이주민들이 중국으로부터 겪었던 박해와 수난, 그로 인한 부정적 인식과는 상당히 달라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어정쩡’했던 중국에 대한 감정은 우호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호칭으로는 대접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오랜 습관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우리 민족의 의식의 저변에 흐르는 미묘한 갈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중략...)

대체로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허위와 날조는 바로 눈앞에서 난무하게 마련이다. 1930년대에서 해방까지의 역사적 사실, 특히 중국의 왜곡된 위상을 바로 인식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여건의 변화를 필요로 했지만 때론 진실이 역사상에서 지워지고 함몰될 경우가 있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성급하게도 한다. (...중략...)

각설하고 지금 중국기행을 쓰는 마당에 만보산 사건에 관하여 일단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일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관점이 나 감정도 그 사건의 해명 없이는 설명이 안되고 정중히 사과하는 것도 우리의 도리일 것이다.³⁵⁾

중국을 실제로 여행하고, 특히 ‘만주’를 답사하면서 바뀐 작가의 ‘중국관’은, 과거 ‘만주’ 지역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에 해석에도 일정한

35) 박경리, 『만리장성의 나라』, 11-12면.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4부에서도 줄곧 '만보산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을 조선 민족에게 수난을 준 대상으로 그려내던 그는 중국 여행 이후에 '역사를 끄집어내어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박경리가 말하는 '진실'은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왜곡된 '위상'을 바로 잡는 것이며, 과거 '만보산 사건' 때처럼 조선인들에게 피해를 입은 중국에게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도리'임을 깨닫는 것을 뜻한다. 이뿐 아니라, 박경리는 예전 중국이 일본에게 당당하게 대항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형편 없다고 느낀 것이 조선의 '이율배반적 태도'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뉘우침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³⁶⁾ 이러한 작가의 사유는 결국 '중국' 역시 조선과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주의에 수난을 겪은 '피해국'³⁷⁾이었다는, 일종의 '연대감'을 확인하는 데에 이른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소거된 그 '공백'에 한층 고조된 '배일' 감정이 보충된다.

'중국' 기행을 통해 역사 인식에 일정한 변화가 생긴 박경리는 『만리장성의 나라』에서 중국과 한국이 겪은 역사적 수난을 모두 일본 제국주의 탓으로 규정한다. 애초에 박경리의 중국 여행의 목적이 조선 이주민들의 후손들을 삶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그는 '중국'을 여행하면서 무엇보다 조선 이주민들의 역사적 경험과 삶, 특히 독립투쟁사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조망한다. 박경리는 조선인의 대규모의 '만주 이주가 발생한 이유와 그곳에서 이주민들이 겪은 '수난'이 모두 본질적으로 '일본' 때문이었다고 말하면서, 한국 역사에서 '조선족들의 독립투쟁사가 축소되고 왜곡된 것 역시도 결국 일본 제국주의와 일제에 협력했던 자들 때문이라고

36) 박경리, 『만리장성의 나라』, 13-14면.

37) 박경리는 기행문 『만리장성의 나라』에서 '중국은 우리와 같은 피해국으로 헐벗은 우리 민족의 유랑지였으며, 일본의 마수를 피하여 망명해 갔던 곳이며, 국권을 탈환하기 위한 투사들의 저항의 근거지,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졌던 그 땅을 알지 못하고서 작품을 쓸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박경리, 『만리장성의 나라』, 15면.)

이야기 한다.³⁸⁾ 또한 ‘중국’을 우호적으로 인식하게 된 박경리는 여러 차례 ‘중국’과 ‘일본’을 비교하고 있는데, ‘중국’을 넓은 국토와 호방한 의식세계를 지닌 국가로 묘사하는 반면 ‘일본’은 의식도 좁고 미래가 없는, 죽은만이 존재하는 국가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이러한 ‘일본’과 같아지는 것을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함을 강조한다.³⁹⁾

중국 여행 이후 변화된 박경리의 역사적 관점을 좀더 간결하게 요약하자면, 『토지』 2부를 집필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박경리에게는 ‘중국/일본’이 한 축으로, 그리고 그 대타항에 ‘조선’이라는 수난과 핍박의 ‘타자’가 배치되는 형국이었는데,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한국/중국’이 한 축으로, 그리고 그 대타항에는 제국주의 침략자이자 가해자인 ‘일본’이 배치되는 형국으로 바뀐 셈이다. 또 하나 특기할만한 사항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순간, ‘간도’는 더이상 회복해야 할 ‘고토’로 호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중국 여행 직후 박경리는 ‘간도’를 우리 민족의 이주 역사가 존재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현재’에는 ‘중국’ 정부의 정책 아래에 우리 ‘민족’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중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다.⁴⁰⁾

38) 그는 일제에 항전했던 동북지방의 조선족들의 독립투쟁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독립투쟁사가 왜소하게 축소되고 왜곡된 것은 첫째 국토가 찢어진 때문이며 이념으로 대립되어 철의 장막이니 죽의 장막이니 하며 벽을 치놓고 살아왔기 때문이지만 과거 일제치하, 나라와 동족을 배반했던 친일분자들이 해방이 된 후 권력에 빌붙어 각분야를 장악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이 부추기고 유도해 온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친일파의 적은 누구인가? 독립투쟁사의 적은 누구인가? 문제는 자명해진다. (박경리, 『만리장성의 나라』, 128면.)

39) ‘떠나올 때 중국을 경작돼 있는 사회, 도식화되어 움직이는 사회라는 그런 선입견이 없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다. (...중략...) 결국 일본인의 의식 속에서는 삶의 자리가 좁은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강력한 통치력에도 불구하고, 유장함을 느끼는 것은 역시 국토와 의식세계, 두 공간이 넓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중략...) 일본에는 미래의 비전이 없다. 오직 현실이 있을 뿐. 그러나 현실은 미래에 반드시 갇아야 할 빛이 있는 것이다. (...중략...) 우리의 사정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일본이 부러워 닮아 가려고 몸살인 실정은 날로 삶의 터전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 (박경리, 『만리장성의 나라』, 86-89면.)

이처럼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는 반대급부로 '배일감정'의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 이유로, 『토지』 5부는 소설로 쓴 '일본론'이라고 할 만큼, 일본의 역사와 문명에 관한 많은 서술이 이어진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인식의 변화가 점진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계기적 사건이나 경험, 혹은 담론지형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다소 급격한 변화였던 까닭에, 『토지』의 서사 전개도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었다. 특히 변화된 '중국관', 강한 '배일감정'은 5부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들의 삶을 '독립운동'으로 수렴시키는 결과를 낳고, 이는 풍요로운 서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만주'에 관한 공간 표상 역시 마찬가지인데, 『토지』 5부에서의 '만주'는 '독립운동'의 본거지 혹은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 독립운동 투사들이 수난을 겪는 공간이자 조선 민족의 신념이 담긴 장소로 전경화(前景化)된다. 이것은 2부에서 재현된 '만주'와는 사뭇 다른 의미의 공간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것은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다.

40) 간도를 언젠간 회복해야 할 '고토'로 보는 작가의 의식과 조선 이주민들이 중국으로부터 겪었던 박해와 수난은, 작가가 '일본론'을 쓰겠다고 다짐한 이후 4부에서도 유지된다. 그는 4부에서 선우 형제와 유인성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만보산 사건의 진상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곳에 있던 놈이면 그곳 실정쯤 파악하고 있어야지"라는 선우일의 말에 유인성은 "하지만 우리 농민이 꺾박받는 것은 사실 아닌가. 따지고 보면 그 땅이 누구 땅인데? 태곳적부터 우리 땅이었다구."라고 말한다. 또한 선우일 역시 만보산 사건의 결과만을 따지는 것 역시 불만이라고 말하며 "간도땅은 우리 민족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 있는 우리땅이라구, 우리 민족이 가서 살 권리가 있는 땅이야"라고 말하면서 고토 회복 의지를 드러낸다. 박경리는 이들의 대화 속에 간도에서의 '개척정신'을 설파환의 이야기로 삽입시키면서 그곳이 '조선 민족에게는 서사시적 무대이며 아득한 옛적부터 민족의 혈흔이 점철된 그곳 간도의 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박경리, 『토지』 15, 162-165면.) 4부에서의 이러한 작품 서술을 볼 때, 박경리는 5부 연재 이전까지도 '간도' 지역을 언젠간 회복해야 할 고토로 여기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중국을 여행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함에 따라, 5부에서는 '간도'에 대한 조선 이주민들의 역사는 인정하되, 더 이상 '간도' 지역을 회복해야 할 '고토'로 보고 있지 않다.

4. ‘배일감정’, 혹은 과잉된 민족주의와 『토지』 5부의 ‘만주’ 형상화 방식

『토지』 5부는 박경리가 중국 여행을 다녀온 후 3년 뒤인 1992년에 연재가 시작되었다. ‘중국’ 여행을 계기로 동아시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일정한 변화를 일으켰던 그는 『토지』 5부에서 자신이 실제로 방문했던 ‘하얼빈’과 1932년 만주국의 수도였던 ‘신경’을 중심으로 작품 속에 ‘만주’를 다시 등장시킨다. 그러나 5부에서 그려지는 ‘만주’는 독립투사들의 공간이며, 동시에 조선 민족 전체의 수난의 공간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경리가 『토지』 5부에서의 ‘만주’를 ‘용정’이 아닌 제국주의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신경’과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이 행해졌던 ‘하얼빈’을 중심으로 그려나가는 것도 시사적이다. 1910년대 전후의 ‘간도’를 배경으로 하던 2부와는 다르게, 5부에서의 시대적 배경은 ‘만주국’ 수립 이후이다. 1932년 만주국의 수립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의 정치적 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되고, 그 내부에서의 ‘중국인’과 ‘조선인’의 관계 역시 2부에서 배경이 되었던 ‘간도’와는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박경리는 2부에서의 ‘간도’를 구현할 때, ‘간도 협약’ 등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중국과 일본의 정책 변화 문제들에 의해 변화하는 조선인들의 위치와 그로 인한 영향들을 고려하여 이들을 작품 속에 그려내었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수난’의 측면만 부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간도 협약을 이용하여 ‘조선인’들이 ‘간도’에서 취할 수 있는 ‘이점’과 ‘기회’ 역시도 함께 제시되는 방식으로 작품 속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5부에서 ‘만주’를 다시 등장시킬 때, 그는 만주국 수립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중국과 일본의 정책 변화, 그리고 작가에 의해 선택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인 수난사의 현상으로서만 집중적으로 재현해 내고 있다. 연재 초기의 박경리의 구상, 요컨대 다양한 신분과 계급의 인물들

의 인생 부침(浮沈)을 풍요롭게 그려보고자 했던 그 구상이 5부의 '만주' 형상화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면, 5부에서의 '만주', '신경'과 '하얼빈'은 '간도'보다 좀 더 역동적인 공간이자 '기회의 땅'으로 그려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만주 사변 이후 '만주'라는 지역은 조선 이주민들에게 '농민은 농민대로,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장사꾼은 장사꾼대로 만주가 주는 환상과 꿈에 취할 만큼 '대리(代理)해방의 공간이자 유사(類似) 해방감과 의사(疑似) 제국주의자로서의 포즈가 가능한 곳'⁴¹⁾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여행 후 변화를 겪은 역사 인식과 점진적으로 강해지고 있던 작가의 '배일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만주는 조선인들에게 이주의 고통과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도약과 기회의 땅이기도 한 그런 곳이 아니라, 오로지 '수난'만이 전면에 드러난 곳으로 형상화 되었다. 작가는 이를 위해, '만주'의 여러 도시 중에서도 제국주의의 권력과 그에 맞서는 민족주의의 저항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시로, '신경'과 '하얼빈'을 선택하였다. 즉 5부에서 형상화된 '만주는, '만주국' 수립 이후 실제로 나타난 다양성과 이질성, 또는 복합적이고 인공적이며 실험적이기도 했던 만주 사회의 여러 특징들과, 그러한 사회적 공간에서 살아나갔던 재만 조선인을 비롯한 다양한 '만주'의 인간 군상들을 풍요롭게 그려내고 있지 못하다. 그 대신, 『토지』를 소설로 쓴 거대한 '일본론'으로 완수하고자 했던 작가의 목적과 중국 여행 이후 '민족주의'가 기억하는 '만주'를 다시 작품 속에 재현시키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신경'은 1932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수립된 '만주국'의 수도였다. 당시 '신경'은 『만선일보』에서 '만주사변 발생과 건국은 이 도시에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⁴²⁾고 말할 정도로 만주국의 수도로서 정치, 행정,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또한 일본은 '신경'을 '아시

41) 김철, 「몰락하는 신생: '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 『상허학보』, 2002, 156-157면.

42) 『만선일보』, 1940.9.23.

아의 발전하는 일본의 영도력을 보여주기 위한 세계적인 미래 도시로 디자인⁴³⁾했다. 즉 일본은 ‘신경’을 국력 과시와 권력의 상징으로 설계했던 것이다. 지배자에게 있어 ‘권력’의 상징인 도시는 피지배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지배자’의 권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위계’의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만주’의 지역 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신경’은 일본 제국주의를 직접 표상하는 공간이며, 박경리는 이러한 성격을 지닌 ‘신경’을 5부 ‘만주’의 한 도시로 설정했던 것이다. 한편 ‘하얼빈’은 ‘신경’과 다소 상반되는 의미의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박경리는 ‘하얼빈’을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이 벌어졌던 ‘민족주의적 신념의 장소⁴⁴⁾’로 재현한다. 박경리에게 있어 ‘신경’이 지배 ‘권력’의 상징 공간이라면, ‘하얼빈’은 피지배층의 수난과 저항의 상징 공간이었던 셈이다. ‘하얼빈’은 그런 대항 상징성을 드러내기 위해 설정된 장소였다.

『토지』 5부의 첫 장 제목은 「신경의 달」인데, ‘독립투사’인 ‘홍’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가 ‘신경’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자신이 ‘독립투사’임을 숨기고 일본인의 눈을 속이기 위해 자동차 공장을 운영해야 했기 때문이다. ‘홍’은 공장 경영인이라는, 당시 이주 조선인 사회에서는 비교적 성공한 인물이면서도, 그에게 ‘신경’은 피난처일 뿐 언젠간 떠나야 할 곳이다. 요컨대, ‘홍’에게 ‘신경’이란 도시는 신생국가 ‘만주국’의 수도도 아니고, 부를 축적해 입신양명할 수 있는 기회의 도시도 아니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인간들과 삶이 교차하는 실제의 도시 형상보다도, 이 공간에 균질적인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 작가의 의도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홍’을 통해 그려지는 ‘신경’은 독립운동을 위한 거점이자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위장 공간일 뿐이다. 도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의 이면에 전쟁과 물신(物神)과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신경’보

43) 프래신깃트 두아라, 한석정 옮김, 『주권과 순수성-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2008, 155면.

44) 조윤아, 앞의 글, 232면.

다는 한참 낙후되고 경제적 규모도 작았던 '간도'를 역동적인 공간으로 그려졌던 2부에 비하면, 도시에 관한 이러한 표상 형식은 상당히 흥미롭다.

『토지』 5부는 '홍'이 신경에서 발행하는 1940년 8월 1일자 「낙토일보」⁴⁵⁾를 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군마와 일장기와 만주국 황제 부의의 종언을 기다리는 숨막힌 병실인지 모른다. 덧없는 집념의 명령들이 떼지어 거리 모퉁이를 돌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도시는 편안한 잠, 꿈을 꾸지도 않는다. 휘고 일그러지고 비틀거리는 도시, 일본인은 말하기를 왕도낙토라, 왕도낙토의 수도는 낙토 중에서도 낙원일진대 그러면 그것은 부의의 왕도인가 히로히토의 왕도인가. 만주인의 낙토인가 일본인의 낙토인가, 하 참, 사변의 허황함이 야말로 칼을 능가하는 살육이요 유린이며 강탈의 무기인지 모를 일이다. (...중략...) 신경의 인구는 그 기구 속에 갇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지상을 떠나가고 있다, 하고 생각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그랬는데 눈앞이 환해지며 섬광이 교차하고 무너져내리는 것이었다. 뭔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술한 건물이었다. 한없이 넓고 하얀 가로를 질주하는 자동차, 카키빛 군용차, 마차, 인력거, 바람에 서걱거리던 가로수, 무리지어 가는 사람들, 꽃잎 같은 아이들이 있고 행진하는 일본 병정, 그 모든 것이 소리 죽은 채 땅속으로 무너져내리고 있었다.⁴⁶⁾

위의 인용문은 신문을 읽으며 '신경'에 대해 생각하는 '홍'의 감정을 서

45) 여기서 등장하는 「낙토일보」는 만주국 수립 이후 장춘의 「만몽일보」와 용정의 「간도일보」가 통합되어 1937년에 언론통제정책을 단행하고 '만선일여'와 '오족협화'의 도모를 위해 창간된 신문 「만선일보」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만선일보」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만주지역에서 선전홍보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탄생했다는 점과 친일어용적 신문이었다는 점 그리고 '홍'이 읽고 있는 신문 이름에 '낙토'가 들어가며 신문 기사에 스파이 혐의로 취조받던 로이터 통신사 동경 지국장 코쿠스가 투신자살한 사건이 '일본 무사도의 정화(精華)'라고 표현된 것을 미루어 보면 「낙토일보」는 「만선일보」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46) 박경리, 『토지』 16, 13-14면.

술한 것이다. 여기서 ‘홍’은 ‘만주국’의 수도 ‘신경’의 모습을 ‘휘고 일그러지고 비틀거리는 도시’라고 표현한다. 작가는 ‘홍’의 눈과 입을 통해, 신생 국가 ‘신경’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 이면에 감추어진 광기와 공포를 그려내는 데 주력한다.

이후 ‘홍’과 조선에서 ‘만주’로 온 악극단의 ‘송영광’이 나누는 대화에서도 이런 형상화의 특징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은 그 자체가 감옥’이라는 송영광의 말에 홍은 ‘만주’ 역시 감옥이자 조선 민족이 수난당하는 곳을 다시 환기한다.

총칼과 교지(狡智)로써 우리 속에 가두어진 조선 민족, (...중략...) 유사 시에는 비상용이고, 분명 불모는 아니다. 일본이 강탈한 강산에 노닐던 짐승들이다. 그들 재산 목록에 들어 있는 것이다. 어찌하여 이같이 하늘과 땅 사이에 법이 없는가. (...중략...) 이 무법의 별판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견고 있는 걸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누군가 죽으면 서럽게 울면서 장사 지내고 만나고 이별하고, 무법의 별판에서 그들은 어떤 앞날을 꿈꾸는 걸까. 조선에서 슬하게 만주로 팔려오는 처녀들에게도 앞날은 있는 걸까. 칼의 문화, 유곽문화(遊廓文化), 그것도 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으나 여하튼 일본 군화가 지나간 곳이면 맨 먼저 어김없이 서는게 유곽이다. 그러고 보면 칼과 섹스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고 생과 사의 윤회인 것 같고, 이 미망(迷妄)의 유전(流轉)은 진정 끝남이 없는 것인가. 유곽으로 끌려온 조선의 딸들, 그것은 죽음인가 삶인가.⁴⁷⁾

송영광과의 대화 속에서 ‘홍’은 ‘신경’을 넘어 ‘만주’ 지역 전체가 조선 민족을 가둔 일본의 ‘우리’이자 조선인은 일본 ‘재산’ 목록에 있는 비상용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홍’의 생각은 박경리가 중국을 여행하면서 느낀

47) 박경리, 『토지』 16, 58-59면.

‘간도협약에 대한 생각과 일맥상통한다.⁴⁸⁾ 이외에도 박경리는 ‘신경’을 1941년 정초 ‘설’ 분위기가 가득하여 ‘일장기와 만주국 국기가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과 ‘양력설을 쇠지 않는 만주인들의 초라하고 기죽⁴⁹⁾’은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여 ‘신경’의 부정적인 모습을 강화하면서도 중국 여행 이후 느꼈던 것처럼 중국인들을 ‘조선’과 같은 ‘피해국’으로 규정하는 듯한 서술을 한다. 즉 중국 여행 이후, 작가가 ‘배일감정’이라고 표현하는 ‘민족주의’의 이념적 기능은, 『토지』 5부에서 다시 ‘만주’ 지역을 작품의 서사적 배경으로 복원시킴과 동시에, ‘만주’를 일본 제국주의의 권력 상징이자 몰락의 징후를 드러내는 공간으로, 그리고 독립투사를 포함한 조선 민중들의 수난의 장으로 대비시키는 이분법적 구도를 조성하게 만들었다.

한편, 박경리는 ‘하얼빈’을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독립운동’의 성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1938년의 하얼빈역은 『토지』 4부 마지막 무대로 그려졌는데, 박경리는 4부의 마지막 무대를 ‘하얼빈’으로 설정하면서 그 공간을 ‘조국 독립에 헌신할 것을 맹세한 유인실과 코스모폴리탄 오가타 지로가 서로 엇갈리는 곳’으로 그려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5부에서도 ‘하얼빈’은 조국 독립을 위해 힘쓰는 유인실이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곳 즉 민족주의적 신념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박경리는 『만리장성의 나라』에서 ‘하얼빈’이 ‘나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박경리가 ‘하얼빈’에 개인적 의미를 부여한 이유는 바로 ‘조국 독립에 헌신할 것을 맹세’한 유인실이 ‘일본인’인 오가타 지로와 엇갈리는 곳, 그것으로 인해 ‘애수’가 스며든 장소이기 때문이다.⁵⁰⁾

48) 박경리는 『만리장성의 나라』에서 ‘소위 間島協約이라는 것을 맺으면서 일본은 장차 대륙 침략의 포석으로 동북지방 여러 곳에 영사관, 영사관 분관 설치와 吉長鐵道를 연장하여 회령에 연결하는 이권을 따낸 것이다. 생각해 보면 기막힌 일은, 어찌하여 노일 전쟁의 전리품이 우리나라였는가라고 말하면서 ‘간도협약’ 이후로부터 일본은 우리 민족을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왔다고 기재하고 있다. (박경리, 『만리장성의 나라』, 61-62면.)

49) 박경리, 『토지』 17, 108면.

주지하다시피 박경리는 『토지』에 오가타를 포함하여 상의의 선생인 하시모토와 호시노 등 인간적이고 긍정적인 ‘일본인’들을 그려 넣었다. 이는 『토지』가 본래부터 민족을 그리려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그리려 했다는 작가의 말을 환기하는 지점인데, ‘하얼빈’에 이러한 장면을 배치한 것은 ‘민족’ 이전에 ‘인간’이면서도 다시 ‘민족주의’의 호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민족’으로서의 자기 아이덴티티를 재확인해야 했던, 그래서 엇갈릴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 유인실과 ‘일본인’ 오가타 지로의 딜레마를 각인시킨다. 박경리는 결국 ‘인간’이 아닌 ‘민족’을 그리는 쪽으로 선회하고, ‘하얼빈’ 역시 ‘민족주의의 신념의 장소’로서 더욱 견고한 상징성을 갖는다. 즉 박경리에게 있어 ‘하얼빈’은, ‘민족’이 아니라 ‘인간’을 그리고자 했던 그의 애초의 기획과 사명감마저도 잊게 만드는, 소설로 쓴 ‘일본론’을 위한 ‘민족주의의 성지(聖地)’로 바뀌었던 것이다.⁵¹⁾

‘하얼빈’을 이와 같이 보는 이유는, ‘하얼빈’이 다른 만주 지역과 다르게 작품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민족주의적 신념의 장소’라는 일관된 의미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얼빈’은 2부에서부터 회령, 용정 등의 지역과 함께 등장하면서도 ‘민족주의’를 위한 신념의 장소로 형상화되었다. ‘하얼빈’이라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서술하는 과정도, 소설의 다른 사건들을 서술할 때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특정 사건을 이야기할 때 박경리가 주로 쓰는 것은 등장인물의 ‘전언(傳言)’을 통해 간접 묘사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안중근’의 하얼빈 사건만큼은 사건 자체와, 그 사건

50) 박경리, 『만리장성의 나라』, 242면.

51) 그러나 박경리는 ‘하얼빈’의 이미지를 ‘민족주의의 성지’로 형상화하고 있으면서도, ‘신경’과 마찬가지로 ‘하얼빈’의 어두운 모습 역시도 작품 속에 재현해 내고 있다. 그는 ‘카바레’라는 환락장소를 통해 ‘하얼빈’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작품 속에서 ‘하얼빈’은 ‘어두컴컴하고, 뒷골목 같은 냄새’를 풍기는 곳으로 형상화된다. 박경리는 ‘카바레’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광과 흥의 대화를 통해 ‘하얼빈’이 환락장소가 된 것 역시 모두 일본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흥은 영광에게 ‘관동군이 득실거리는 만주 대륙이다. 어디든 막론하고 일본군이 들어오면 맨 먼저 서는 것이 청루 유곽이야. 그게 일본군의 특색이지. 이곳에 카바레가 아직 있는 것도 말하자면 환락에는 관대한 분위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박경리, 『토지』 20, 51-52면.)

이 불러 일으킬 영향력, 그리고 후일담까지 매우 자세하게 서술한다. 또한, 마치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을 떠올리는 유사한 사건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박경리는 ‘하얼빈’에서 ‘금녀’가 ‘밀정’인 김두수를 총으로 쏘는 사건이 그에 해당한다. 또한 ‘연추의 조선인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며 민족의식을 갖추어 가던 ‘금녀’가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면서 떠나는 도시도 ‘하얼빈’이다. ‘신경’이, 비록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이면에 몰락의 징후를 가득 담지한, 권력의 광기와 물신의 허위로 그려지고 있다면, ‘하얼빈’은 민족주의의 신념이 육화한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신경’과 ‘하얼빈’ 중심으로 그려진 5부의 ‘만주’ 공간은, 『토지』 초반부에 해당하는 2부의 ‘간도’ 중심의 ‘만주’ 표상과 상당히 이질적이면서 대비되는 공간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박경리의 『토지』는, 거의 30년에 육박하는 긴 집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변화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초기의 구상과 기획, 그리고 작가의 의도는 연재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당대의 담론 질서, 그리고 ‘민족주의’와의 절합 등의 영향으로 인해 특징적인 변곡점들을 만들어 냈다. 그 중에서도 이 글이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 것은 소설에 구현된 ‘만주’ 공간의 표상 형식과 그 의미였다.

박경리는 『토지』 2부에서 서사공간을 ‘간도’로 확장하는 과감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가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간도’에서의 삶을 그리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에 의존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2부 집필 전후하여 형성된 ‘고토 회복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고토 회복운동’도 결국은 ‘민족주의’이데올로기와 연동된 것일진대, ‘민족주의’는 작가

박경리에게 『토지』 집필 전 과정에서 만났다가 헤어지고, 다시 헤어졌다가 만나기를 반복하는 매우 복잡한 이념적 조종중심으로 기능한다. 작가는, 그것에 포박될 때 ‘인간’이 아니라 ‘민족’을 그리는 것에 함몰될 것을 스스로 잘 알고 또한 기피하면서도, 중국에는 그 강한 이데올로기의 자장(磁場)에 끌려 들어가기도 한다. 2부와 마찬가지로 5부 연재를 시작하면서 박경리는 19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까지 당시 ‘만주국’에서의 다양한 재만 조선인의 삶과 마주했을 것이다. 작가가 만주국의 역사와 조선인들의 실상을 검토하면서, 당시 ‘만주국’ 역시 1910년대의 ‘용정’과 같이 항일 투사와 관동군 양자만이 대결하는 ‘항일운동의 성지’로만 신비화될 수 없는 지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과도 역시 마주했으리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실제로 1932년 당시 ‘만주’는 ‘풍요의 뿔’이라고 불릴 정도로 ‘만주’의 이미지는 ‘만주 유토피아니즘’으로 변주되⁵²⁾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 4부에서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민족주의’의 시각은 연재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박경리는 ‘중국’을 여행하게 되고 낯선 땅에서 여전히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이주민들과 그들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 정부의 ‘소수 민족 정책’을 알게 된다. ‘중국’ 여행은 작가가 견지하고 있던 ‘중국관’에 큰 변화를 초래한다. 그는 ‘중국’을 조선과 마찬가지로 ‘피해국’으로 재인식하며, 일종의 ‘연대의식’으로 함께 묶어 세운다. 그와는 달리, 소설의 후반부로 갈수록 ‘배일감정’은 점차 고조된다.

‘공간의 생산과 그 생산 과정이 존재한다면, 거기엔 반드시 역사도 존재한다⁵³⁾’는 말처럼, 공간과 역사는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1910년부터 1940년 후반에 이르기까지 ‘만주’라는 공간은 우리 민족의 수난과 저항의 장인 동시에 가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도 작용했다. 작품 연재 초기에 박경리는 ‘만주’라는 공간에 이주한 ‘조선인’들이

52) 김철, 위의 논문, 148면.

53)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98면.

그 공간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 공간이 '조선인'들에게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추적하여 그들의 삶을 작품으로 재현해내고자 했다. 그 결과로 박경리는 '만주'를 '수난과 저항'의 장으로 재현하는 기존 재만 문학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만주'를 형상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4부 연재를 시작하면서, 작품을 통해 작가 자신의 '일본론'을 드러내고자 했던 박경리는 『토지』 5부에서 '만주'를 다시 '수난과 저항'의 장으로 그려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집필 시기별 '만주'의 이미지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박경리가 재현했던 2부와 5부에서의 만주는 모두 당시 '만주'에서 조선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만주'의 다양한 특성들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민족주의'의 태도를 경계하며 작품을 서술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는 '일본론'을 완수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인해 정도가 약해졌지만, 5부에서 주로 형상화된 '독립운동' 서사와 일제로부터의 '수난과 저항'이라는 만주 공간의 성격 역시도 2부에서 박경리가 보여주었던 다양한 모습처럼 당대에 그 공간에서 '조선인'들이 체험하고 인식한 역사였다. 즉 2부와 5부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 간극을 들여다보는 작업은 당시 박경리의 역사적 관점 변화에 따른 '만주' 지역의 형상화 방식을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만주'라는 지역이 '조선'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공간은 실제 만주를 체험한 작가와 그 이후 작가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파악해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작업은 박경리와 『토지』에 있어 '만주'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탐구에서 나아가 한국 근현대문학사에서 '만주'라는 지역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박경리, 『토지』 전 20권, 마로니에 북스, 2012.
박경리, 『만리장성의 나라』, 동광출판사, 1990.
《신동아》, 《동아일보》, 《조선일보》

2. 논문 및 단행본

- 김철, 「몰락하는 신생: '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 『상허학보』 9호, 2002.8, 123-159면.
김태국, 「1920년대 용정의 사회 문화 환경과 중학교 설립운동」, 『송실사학』 25집, 2010.12, 183-206면.
이상진, 「『토지』속의 만주, 삭제된 역사에 대한 징후적 독법」, 『현대소설연구』, 24집, 2004.12, 231-256면.
_____, 「탈식민주의적 시각에서 본 〈토지〉속의 일본, 일본인, 일본론」, 『현대소설연구』 43호, 2010.3, 409-445면.
_____, 「심상과 사실, 지도의 상상력: 박경리 『토지』의 만주지역 형상화 방식」, 『통합인문학연구』 10호, 2018.2, 277-306면.
이승윤, 「소설 토지에 나타난 모빌리티 연구-공간의 재인식과 관계의 재구성-」, 『현대문학의 연구』 72호, 2020.10, 359-382면.
이승윤·조윤아, 「판본 비교를 통해 살펴본 『토지』의 수정 양상과 서술상의 특징」, 『동남어문논집』 37호, 2014.1, 193-222면.
박경리·정현기·설성경, 「한국문학의 전통과 그 맥 잇기」, 『현대문학』, 1994.10.
정호웅, 「한국 현대소설과 만주공간」, 『문학교육학』 7호, 2001.6, 171-196면.
_____, 「『토지』와 만주 공간」, 『구보학보』 15집, 2016.12, 348-374면.
조윤아, 「두 가지 층위로 나타난 하얼빈의 장소성」, 『비평문학』 68호, 2018.6, 218-247면.
천춘화,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만주 공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3. 단행본

- 김경일 외 3명,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2004.
김치수, 『박경리와 이청준』, 문학과 지성사, 2016
박경리, 『못 떠나는 배』, 지식산업사, 1988.

- 한수영, 『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5.
-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7.
- _____, 『만주 모던』, 문학과지성사, 2016.
- 한석정·노기식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2008.
- Henri Lefebvre,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 Prasenjit Duara, 한석정 옮김, 『주권과 순수성-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2008.
- Yi-Fu Tuan, 윤영호·김미선 역,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Abstract>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perception of East Asia and the representation of space in the imagery of 'Manchuria' in 『Toji』
— Focusing on th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serialization period

Han, Sooyeong · Choi, Seokyeol

This paper is used to track Park Kyung-ri's thoughts and the factors of change in the “historical perspective of China/Japan view” by period of serialization of “*Toji*” and to examine how these changes are reflected in the “Manchuria” shaping method in the work. “*Toji*” is a long-standing novel created for a total of 26 years, starting from June 1969 and ending in August 1994. When an artist creates a work for more than 20 years,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the first concept of the work and the artist's thoughts and inner consciousness, which may be reflected in the work's narrative for the opposite reason and move in a different direction than originally envisioned. For a long period of 26 years, Park Kyung-ri also wrote by changing the idea and plan of “*Toji*,” which was initially set according to changes in his thoughts. In particular, the change in the description of the work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artist's ideology appears dramatically before and after the start of the series of four parts, and the biggest main cause of this change is the change in the artist's “historical perspective of China/Japan view.”

Changes in the description of the work according to these changes appear in various ways in the novel, and this article focused on the 'Manchuria' spatial shaping method reproduced in the series of 2 parts and

5 parts. The reason is that “Manchuria” in the second and fifth parts was reproduced in the work with contrasting meanings, influenced by the author's view of history and socially formed discourse at the time. When Park Kyung-ri embodies “Manchuria” in “*Toji*” he created a new image of “Manchuria”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author's view of history by period of serialization.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he 'Manchuria' shape method in the work, focusing on two factors of the artist's thoughts and historical views by serial period. The first is the socially formed “Gando” discourse at the time of the second part's serialization, and the second is the “China” trip experienced in 1989 ahead of the fifth part's serialization. In the second part, the “Manchuria” area was formed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the author's historical view, which was considered the “old land” to be restored, and the socially formed “Gando” discourse at the time of the second part of the series in 1972. For this reason, in the second part, Park Kyung-ri depicts Manchuria as a diverse home for the lives of former migrant Koreans and a place to recover, and both China and Japan are depicted as objects that have caused suffering to our people. However, Park Gyeong-ri, who was wary of being obsessed with “nationalism” in describing the work, changed her attitude after the fourth part and tried to make “*Toji*” a “Japanese theory” based on “nationalism.” At this time, the writer travels to China, where he faces the descendants of Gando migrants. Through this experience, the artist changed his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and after his trip to China, he defined China as a “damaged country” by Japanese imperialism. Furthermore, the author positively recognizes China, which conducts 'minority national policies' to protect our people. This change in perception resulted in a view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ith the dichotomous structure of “China/Korea” and “Japan,” and later in part 5, “Manchuria” is embodied in a way that penetrated the prism of “nationalism” such as

suffering/resistance by “Japan.”

As such, “Manchuria” was a space formed through a sense of purpose created by changes in social discourse and ideas based on the writer's experience according to the period of serialization. Therefore, in order to interpret Manchuria's meaning in “*Toji*” in abundance, it is necessary to read the writer's thoughts and historical views that have changed due to social discourse and personal experiences by period of serialization.

Key Words: Manchuria, Space, Gando, Nationalism, Harbin, Place

투 고 일: 2022년 11월 30일

심 사 일: 2022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16일

수정마감일: 2022년 12월 26일